



대한통운

베트남에 현지합작법인 설립



대한통운(대표 이국동)은 베트남에 현지 합작법인인 '대한통운사이공포트(Korea Express Saigon Port Co., Ltd.)'를 설립했다고 5월13일 밝혔다.

베트남 국영 항만하역사인 사이공포트사와 합작으로 설립된 이 법인은 봉타우 성 푸미산업단지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포스코 베트남 냉연공장의 전용부두를 통해 수출입되는 화물의 항만하역과 공장 내 이송, 통관 및 공장으로부터 반경 180km 내 지역의 육상운송 등 종합물류서비스를 제공한다.

대한통운사이공포트는 이 날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으며, 대한통운은 이 법인에 트럭 등 30여 대의 장비를 두고 100여명의 현지인력을 채용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합작법인 설립으로 대한통운의 베트남 법인은 금호사이공익스프레스에 이어 두 개로 늘어났다. 대한통운은 지난 1996년부터 베트남에 진출해 운송, 국제택배, 보관, 복합화물운송주선, 통관 등 종합물류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현지 노하우를 쌓아왔다. 여기에 새롭게 항만하역 사업 등이 추가돼 베트남 물류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대함으로써 현지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됐다.

이국동 사장은 “베트남 항만하역사업의 개시는 글로벌 터미널 운영사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말하고 “하노이를 중심으로 한 베트남 북부지역에도 거점을 확보해 중국대륙과 인도차이나 지역을 잇는 물류벨트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합작 파트너인 사이공포트사는 1862년에 설립, 호치민 시를 관통하는 사이공 강에서 6개의 부두를 운영하고 있으며 봉타우성의 티바이강 유역에 3개의 대규모 항만을 개발하고 있는 등 베트남 최고의 항만하역사로 알려져 있다.

대한해운

석유/화학제품선 인도



대한해운(회장 이진방)이 5월12일 STX 조선소에서 4만9,900DWT급 MR탱커(석유/화학 제품선)를 인수했으며, 이 선박은 '블루 제이드'호로 명명됐다.

블루 제이드호는 대한해운의 블루시리즈 6척 중 마지막 인수되는 선박이며, 블루시리즈(블루코랄, 블루다이아몬드, 블루자스퍼, 블루에메랄드, 블루사파이어)는 이번 인수를 끝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 선박은 세계적인 해운기업인 UG(Ultra Gas-칠레)사에 대선되어 원유 및 석유화학제품 수송에 투입될 것이며, 연간 760만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블루시리즈 4번째 선박인 '블루 에메랄드'호는 최대 VLCC(초대형유조선)그룹인 OSG(Overseas Shipholding Group)사에 대선되어 순항중이다.

또한, 대한해운은 CPI POOL(OSG, UG, 대한해운 등이 공동으로 구축한 선단)을 통해 공동으로



선박 운항 및 관리를 실시하는 등 벌크시황의 급랭으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는 현재 마켓을 감안해 볼 때, 개별 선사들의 행정-비용적 측면을 최소화한 POOL을 통해 운항되고 있는 유조선 부문이 새로운 효자노릇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한해운 관계자는 “블루 제이드 호를 비롯하여 석유화학제품선 4척, 아프리카막스탱커 2척 등 총 8척의 유조선을 확보함으로써 유조선 사업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세계적인 해운그룹들과의 공동운항(POOL)을 통해 안정적인고 타 선사 대비 높은 수익성을 제고할 것”이라 밝혔다.

STX팬오션

해외 최초 곡물터미널사업 진출

STX팬오션(대표 이종철 부회장)은 세계 유수의 곡물 메이저사인 미국 번기(BUNGE), 일본 이토추상사와 함께 EGT Development, LLC(가칭)라는 합작회사를 설립하고 미국 서부지역 롱뷰항에 곡물터미널 사업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EGT Development의 총투자금액은 2억달러 이상으로 번기가 51%, 이토추가 29%, STX팬오션이 20%를 각각 투자하게 될 예정이며 2011년 가을까지 연간 800만톤 이상의 곡물을 처리할 수 있는 저장설비, 육상레일, 부두 및 하역설비 등이 건설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터미널은 미국 서부지역에서 1980년대 초반이후 처음 건설되는 것으로 기존 터미널보다 훨씬 빠른 물류 처리속도 시설을 갖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번기 및 이토추는 보다 원활한 곡물 수송 처리로 추가적인 수출 확대에 주력할 수 있고 STX팬오션은 신규 수송물량 증가에 따른 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STX팬오션 관계자는 “지금까지 카길, 번기 등 곡물 메이저 회사와 일본종합상사 중심으로 운영되던 해외 곡물터미널 사업에 STX팬오션이 업계 최초로 참여한다. 연간 2000만톤 이상의 곡물을 수송하는 세계 최대 곡물 수송 선사중 하나로서 이번 사업 참여로 곡물 운송 영업력 강화 및 미주 서부 지역의 선박 운항 효율성을 크게 제고하며 대 고객 서비스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 번기사는 1818년 설립되어, 자본금 75억달러, 2008년 기준 매출액이 525억달러에 달하는 등 카길과 더불어 세계 주요 곡물 트레이딩 회사 중 하나이며, 이토추상사는 1858년에 설립되어 자본금 20억달러에 2008년 기준 매출액 285억달러를 기록하며 일본 주요 종합상사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합작회사 개요] > 회사명: EGT Development, LLC(가칭) > 본사: 미국 오리건 주 포틀랜드 > 설립일시: 2009년 6월 > 주주구성: 번기 북미지사 51%, 일본 이토추그룹 29%, STX팬오션 미국법인 20% > 자본금: 수출용 곡물 처리시설 건설에 2억불 이상 투자 > 위치: 미국 워싱턴 주 롱뷰 > 규모: 연간 최대 800만 톤 규모의 곡물 수출 가능한 물류시설 > 공사 기간: 2009년 6월 ~ 2011년 가을 예정

태양상선

일반화물선 신조선 1척 인수

태양상선이 최근 6,225DWT 일반화물선 1척을 신조해 한-중-일항로에 투입했다.

태양상선(대표이사 박영안)은 지난 5월24일 포항에서 박영안 사장을 비롯한 대리점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6225DWT 일반화물선 'TY GLORIA'호 취항기념식을 개최했다.

'TY GLORIA'호는 태양상선이 지난 2007년 8월 중국 JIANGSU의 SUYANG MARINE CO LTD에 발주한 6225DWT 일반화물선 2척 중 1척으로 한-중-일항로에 투입돼 주로 Steel Cargo를 운송할 예정이다. 태양상선은 나머지 1척을 오는 12월말에 인도받을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국토해양부로부터 종합물류기업 인증(제휴명 UNIONSTARLOGIS)을 받은 바 있는 태양상선은 이번 신조선 투입을 바탕으로 서비스 거점 확대와 국내외 물류인프라 구축 등 제휴 시너지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UNIONSTARLOGIS는 서비스 범위, 노하우,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선진 물류 서비스 시스템의 구현을 비전으로 출범한 태양상선과 우련통운 간 전략적 제휴그룹이다.

한진해운

제2차 임직원 타운 홀 미팅 실시



한진해운(대표 김영민)이 5월8일 여의도 본사에서 전세계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 2차 타운 홀 미팅(Town Hall Meeting)을 개최했다.

지난 1월20일 본사 임직원 4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제 1차에 이어, 현장의 보다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수렴하기 위해 인터넷 생중계로 진행된 이번 미팅은 전세계 3개 지역본부(구주/아주/서남아)와 한국지점, 해사본부까지 참가했다고 밝혔다.

김영민 사장은 미팅에서 급변하고 있는 해운시황과 향후 전망, 1분기 경영실적과 2009년 예상 실적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미팅에서 김 사장은 "현재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냉정히 돌이켜 봐야 한다"며 "전사적인 역량을 결집하여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리더들이 최선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솔선수범하자"고 참석한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참석한 한진해운 관계자는 "질의응답시간을 활용하여 경영층과 임직원이 경영현안과 대응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현장의 의견을 제시하고 함께 토론함으로써, 임직원들의 궁금증을 해소함과 동시에 전사적 일체감을 다지는 기회가 되었다" 전했다.

한편, 한진해운은 5월15일 여의도 본사에서 김영민 사장을 비롯 직원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창립 32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김영민 사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한진해운은 급격한 변화와 치열한 경쟁에 맞서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을 통해 글로벌 종합물류기업으로 성장해왔음을 임직원들에게 상기시키고, "위기 자체가 아닌 위기에 대한 공포에 동요하지 말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미래에 대한 비전과 희망을 바탕으로 불황기를 극복하고 성장잠재력을 확보해나가지."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의 한진해운인상', '인재상', '모범직원상', '우수지점상' 등 회사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임직원과 지점을 발굴하여 이를 격려하고 표창하는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다.

현대상선

중국 - 미동부해안 2개 서비스 개시

현대상선(대표 김성만)이 중국과 미국 동부해안



을 연결하는 두가지의 운항서비스를 개시했다. 이 두가지 운항서비스는 China Savannah Express (CSX)와 the South China New York Express(SNX)로 각각 냉동 및 건화물 컨테이너선으로 운영된다.

China Savannah Express(CSX) 서비스는 중국을 연결하여 부산, 미 동부해안(파나마 운하 경유)에 운항하며 8척의 선박을 배치했다. 그 첫번째 선박은 3,800TEU급의 'CMA CGM Georgia'호로 5월10일 닝보항에 도착하여 6월6일 미국 사바나항에 도착했다.

CSX 로테이션은 Ningbo, Shanghai, Qingdao, Busan, Panama Canal, Savannah, New York and Miami이다.

South China New York Express (SNX)서비스는 홍콩을 연결하여 중국, 말레이시아를 거쳐 미 동부해안(수에즈 운하 경유)으로 연결되는 루트로 6,000TEU급 14척 선박 배치되어 운항되고 있다.

첫번째 운항 선박은 'Maersk Kolkata'호로 5월14일 상하이에서 출항하여 6월12일 뉴욕에 도착할 예정이다.

SNX서비스의 로테이션은 Hong Kong, Yantian, Tanjung Pelepas, Suez, New York, Norfolk, Savannah, Tanjung Pelepas, Hong Kong, Yantian and Shanghai이다.

홍아해운

시부시항 기항 재개

홍아해운(대표 이윤재 회장)이 5월중순부터 부산-토카이(東海)·코치(高知)항로에 투입하는 320TEU급 글로벌누비라호가 일본 가고시마현 시부시항에 주1회 기항을 개시한다고 홍아해운의 일본 대리점인 三英海運(산에이해운) 최근 발표했다.

홍아해운이 시부시항에 기항하는 것은 지난 2003년 기항중단 이후 6년만이다.

서비스 개시는 5월17일 부산 출항선부터이며, 시부시 첫기항은 18일로 예정돼 있다. 새로운 로테이션은 부산(일)-시부시(월)-시미즈(수)-토요하시(수)-코치(금)-부산 순이다.

인천항만공사

경인운하 관련 사업 착수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종태)가 정부의 주요한 국책사업중 하나인 경인운하 사업과 관련하여 경인운하 접근항로개설과 신규 투기장 조성사업을 착수한다고 최근 밝혔다.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현재 인천항 제1항로는 북항 유류부두까지만 항로가 개설되어 있어, 경인운하 입구까지 항로를 추가 개설하지 않을 경우 경인운하(경인항) 완공 후 선박 입·출항의 지장이 예상됨에 따라 경인운하 완공예정 시기인 2011년 말까지 약 850억규모의 자금을 투입하여 경인운하 접근항로 개설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경인운하 접근항로 준설에 따라 발생하는 준설토를 활용하여 신규 투기장을 조성, 부족한 물류단지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와 관련 경인운하 접근항로개설 및 준설토 처리를 위한 준설토 투기장 조성사업을 위해 공사에서 우선적으로 이번 사업내용을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 계약을 6일 체결하여 본격 착수한다고 공사 관계자는 밝혔다.

현재 인천 북항 항로준설 공사에서 발생하는 준설토는 전량 영종도 투기장에서 처리가 되고 있다. 이에 인천항만공사는 북항 항로준설 공사가 완료되면 영종도 투기장 매립이 완료되기 때문에, 향후

경인운하 접근항로 개설사업으로 발생하는 준설토를 처리하기 위한 신규 준설토 투기장 조성 필요성에 따라 신규 준설토 투기장 사업도 추진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계획중인 신규 투기장만으로는 경인운하 접근항로에서 발생하는 전체 준설토를 처리할 수 없어 인천지방해양항만청에서는 기존 영종도 투기장 호안(사석제방)을增高하여 수토용량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경인운하 접근항로는 일반화물선이 이용할 주항로와 여객선과 레저보트 등이 이용할 보조항로 2종류로 개설될 예정인데, 주항로는 DL(-) 8m, 보조항로는 DL(-) 4m로 수심을 확보하게 된다.

또한, 신규로 조성되는 준설토투기장의 수토용량은 약 725만^m³, 면적은약 80만^m²으로, 투기완료 이후에는 인천항의 부족한 물류부지와 친수공간, 도사용지 등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인천항만공사 김종태 사장은 "경인운하 접근항로 및 신규 준설토 투기장 조성 사업은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경인운하 사업에 항만운영 노하우가 많은 인천항만공사가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한국선급

소통경영으로 결속다지기

한국선급 오공균 회장이 소통경영으로 조직의 결속을 다지고 있다.

한국선급은 오공균 회장이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전사경영현황 설명회를 가지고 회사의 경영 상황 및 시황 전망 등 필수적인 경영정보를 임직원들과 공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한국선급은 회사 경영에 대한 임직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 반영하는 사내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여 내부 결속력을 다지고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 내어 현재의 위기상황을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30일 개최된 전사경영현황 설명회에서 오공균 회장은 △1/4분기 경영성과 △ 경영혁신관리 현황 △부산사육 신축 경과 △통합성과 평가 시스템 △인사평가 시스템 등 평소 임직원들의 관심이 높았던 경영관련사항들을 설명하고 임직원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한편 한국선급은 평소 원칙과 신뢰라는 오공균 회장의 경영철학이 반영된 전사경영현황 설명회를 통해 임직원들이 각자 맡은 바 임무가 회사에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더 나아가 임직원들의 주인정신을 고취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한국해양대학교

원양항해실습 출항

우리나라 해운업계를 이끌어 나갈 예비동량들이 한달간 원양항해 실습에 나선다.

한국해양대학교는 5월11일 오전10시30분 교내



캠퍼스에서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9학년도 1학기 원양항해실습 출항식을 갖고 원양항해에 들어갔다.

이날 출항식에서 오거돈 총장은 장도에 오르는 학생들에게 “세계 최고의 실습선을 타고 무궁무진한 가치를 지닌 바다로 나가 광활한 바다를 직접 체험하고, 돌아올 때는 바다와 같이 넓고 원대한 꿈과 희망을 품고 돌아오라”고 격려했다.

이번에 원양항해실습에 나서는 학생들은 해기 전문교육을 받고 있는 해사대학 3학년 140명이다. 이들은 교수와 승무원 등과 함께 실습선 한바다호와 한나라호에 각각 나눠 타고 다음달 10일까지 3개국씩을 돌며 31일 동안 항해실습을 한다.

이 기간 동안 한바다호는 부산 →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 말레이시아 포트클랑 → 일본 오사카 → 부산, 한나라호는 부산 → 싱가포르 → 필리핀 마닐라 → 중국 대련 → 부산 순으로 각각 항해한다.

승선 학생들은 항해과정에서 해기 실습을 하고, 기항지에서는 해당지역 대학을 방문, 상호 우호증진 활동을 펴고, 체계화된 우리나라 해기교육의 우수성을 알릴 예정이다.

특히 한바다호 승선 학생들은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자매대학 푸티사스트라 대학교(University of Puthisastra)에 재할용 PC 100대를 기증했다. 또 한나라호 승선 학생들은 6월6일 중국 대련해사대학 10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또 대학 측이 전 세계에서 활동 중인 동문들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추진 중인 ‘세계 해양대인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항지에서 현지 동문들을 실습선에 초청, 선상리셉션을 개최하는 등 한국해양대가 기항지 국가와 현재 추진 중인 주요사업의 지원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또한, 해양대학교는 캄보디아의 교수요원이 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기교육을 실시하기로 캄보

디아 정부측과 합의, MOU를 체결했다.

우리나라 대학과 외국 정부간에 MOU를 체결하는 극히 이례적인 일로, 캄보디아 정부차원에서 해운 인력양성에 의욕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한국해양대학교는 앞으로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에 해외캠퍼스(분교) 설치 등을 통해 글로벌 대학으로 발돋움한다는 전략이다.

오거돈 총장과 박진수 해사대학장 등 대학 고위 관계자들이 5월19일 오후6시(한국시간) 시아누크빌에 정박 중인 한국해양대 실습선 한바다호에서 숙안(H.E. Sok An) 부수상과 트람 이브 텍(H.E. Tram, Iv. Tek) 공공교통부장관 등 캄보디아 정부측과 ‘캄보디아의 해운산업 발전 및 해운인력 양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어 한국해양대는 인 비라치트(In Viracheat) 푸티사스트라대학 총장, 강외구 캄보디아 선박등록청(ISROC) 회장 등 3자간에 ‘해기인력 양성을 위한 협정’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바-김홍(Var Kimhong)과 짐 노라(Yim Nolla) 등 2명의 캄보디아 수석장관, 실동근 부산시교육감, 유해창 주 캄보디아참사관, 박사의 부산터키명예총영사, 김문백 주 캄보디아 한인회장, 배병덕 한바다호 선장 등도 참석했다.

앞으로 한국해양대는 다른 동남아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해운산업 발전이 뒤쳐진 캄보디아의 해운산업 발전을 위해 1차로 푸티사스트라대학에서 1년에 학생 4명씩을 받아 해기교육을 집중적으로 시킬 계획이다.

이들 학생은 한국해양대를 졸업한 후 고국으로 돌아가 캄보디아에서 교수가 되어 해기사 인력양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해기분야 교수요원 확보는 단기간에 이뤄지는 일이 아니라, 10여년간의 많은 시간이 걸리고 막대한 자금이 투입돼야

하기 때문에 해당 국가 차원에서 중·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따라서 캄보디아 정부측이 나선 것이다.

한국해양대는 이를 계기로 캄보디아와 학생교류를 활성화하면서 우리나라의 법령이 허용하는 대로 빠른 시일내 캄보디아에 해외 캠퍼스(분교)를 설립할 계획이다.

한국해운조합

유조선 및 화물선 협의회 개최

한국해운조합(이사장 정유섭)의 유조선 협의회와 화물선 협의회가 업계 현안문제 논의를 위해 잇달아 개최됐다.

지난 5월12일 제주에서 개최된 유조선 협의회(의장 김복문)와 15일 부산에서 열린 화물선 협의회(의장 김시진)의 주요내용은 ▷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제도개선 추진 ▷ 연안화물선 유가보조금 지급 시한 연장 및 면세유 공급 추진 ▷ 외국인선원 임금 안정화 추진 ▷ 내항선원 수급난 해소 추진 ▷ 연안화물선 안전향해 안내서 발간 추진 등의 사항을 중심으로 그 간의 추진 경과와 향후 추진 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연안해운업계의 비용부담 및 경감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해양환경개선부담금제도와 화물선 유가보조금 및 면세유 공급 추진에 관한 사항은 최적의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으며, 필요 시 특별위원회를 소집하는 등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15일 개최된 화물선 협의회에는 남해해양경찰청 이정포 청장이 참석해 정부의 해상안전정책방향에 대한 설명과 함께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의 현실을 감안 단 순 경미사범에 대하여는 계도 위주의 치안행정을

펼쳐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화물선 협의회에서는 부산 신항 현장을 방문하여 신항 운영 현황에 대하여 듣고 효율적인 항만운영 방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조합의 업종별 협의회는 여객선·화물선·유조선 3개 협의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업종별로 현안 문제점 개선과 대정부 건의 등 대책마련에 관한 사항, 그리고 업종별 정책방향 및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회원사간 상호 정보교환 및 협조를 도모하기 위해 년 2회의 정기회의와 필요 시 임시 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다.

부산항만공사

천가초등 지원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노기태)는 5월28일 강서구 성북동 천가초등학교(교장 김해청)에 전교생이 편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높낮이가 조절되는 책·결상을 전달했다.

'UP! 스쿨 - 기업과 학교의 아름다운 만남'이라는 주제로 가진 이번 행사에서 BPA는 학생들이 보다 편안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노후된 책상과 의자를 교체해 주고 앞으로 더 나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BPA는 지난 2007년부터 천가초등학교와 결연을 맺고 매년 교육기자재 등을 지원해 왔다.